자동차

Car

8월엔 안전띠 꼭

버스 승객도 단속

오는 8월부터 안전띠 미착용에 대한 집중단속이 실시될 예정이어서 운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14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01년 안전띠 매기 운동이 시작된 이후 착용률이 지속적으로 떨어짐에 따라 7월말까지 홍보·계도를 거친 뒤 안전띠 미착용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경찰은 도심권 주요 교차로에 경찰관을 배치해 계도·단속 및 일제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고속도로·국도 등을 지나는 관광버스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키로 했다.

고속도로 등 자동차 전용도로에서는 차량 뒷좌석에 앉은 사람을 포함해 탑승자 전원이 안전띠를 매야 한다. 또 시내를 주행할 경우 운전자와 조수석 탑승자는 반드시 안전띠를 매야 한다. 이를 어기면 3만원의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최경호기자 choice@

"車 사세요 車"

"차값 깎아 주고 휴가비 일부 지원 디카도 증정 합니다"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이 다가오면서 국내 자동차 업체들의 여름 판촉전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특히 자동차 업계는 여름철 수요가 많은 RV(레저용차량)를 중심으로 특별할인 혜택을 제공하는가 하면 휴가철을 겨냥한 이벤트를 쏟아내는 등 '휴가철 마케팅 대전'에 속속 뛰어들고 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 GM대우차, 쌍용차, 르노삼성차 등 완성차 업체들은 7월 한달간 가격 할인, 여름 휴가비 지원 등 각종 판매조건을 내걸고 새차를 뽑아 휴가를 떠나려는 소비자들을 유혹하고 있다.

업체 휴가철 수요 많은 RV중심 '판촉대전'

◇특별할인 경쟁 치열=현대차는 RV 가운데 신형 싼타페, 투싼, 트라제XG, 스타렉스를 구입하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휴가비 50만원 또는 휴가비 30만원과 디지털카메라를 증정한다. 승용차의 경우 클릭과 베르나(디젤 포함) 구매 고객들에게 휴가비 20만원이나 디지털카메라를 제공한다.

현대차는 또 2006년 국가고객만족도 승용부문 6년 연속 1위, 투싼의 JD파워 초기품질만족 소형 SUV(스포츠유틸리티차량) 부문 1위 등을 기념해 내달 8일까지 '서머 페스티벌'을 개최한다. 이 행사에서는 추첨을 통해 투싼 1명, 신형 아반떼 1명, 피카소 전시회 관람권 1천명 등의 다양한 경품이 제공된다.

쌍용차는 '서머 보너스 페스티벌'이라는 이름으로 휴가철 판촉활동에 나섰다. 행사기간 로디우스 200만원, 카이런과 액티언 150만원, 렉스턴 30만원 등이 고객들의 여름 휴가 보너스로 지원된다.

또한 고객이 원하는 시기에 수시로 원금을 상환하는 '마음대로 할부', 연체 유무에 상관없이 해마다 '-1%'씩 이율이 인하되는 '누구나 -1% 할부' 등도 실시한다.

GM대우차는 일시불이나 정상할부로 차량을 구매하면 20만~200만원(토스카, 윈스톰 제외)을 할인하고, 장기재고 차량에 대해 15만~300만원의 추가 할인혜택을 준다. 대형차인 스테이츠맨의 경우 정상할부에 따른 200만원 할인, 2005년 9월30일 이전 차량에 대한 300만원 재고 할인 등 최대 590만원까지 싼 값에 살 수 있다.

르노삼성차는 할부 원금과 기간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무이자 할부 프로그램 '마이 웨이 할부'(SM7), 유류비 20만원 지원(SM5), 새내기 직장인 및 신규 운전면허 취득 고객에게 20만원 지원(SM3 뉴제너레이션) 등을 실시한다.

◇'썸머 캠프' 등 휴가철 마케팅 '봇물'=휴가철을 겨냥한 각종 이벤트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현대차는 오는 25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2006 현대자동차 썸머 캠프'를 연다. 현대차 보유 고객 가운데 420가족 1천700여명을 여섯 차례에 나눠 강원도 횡성의 현대 성우리조트로 초청해 2박3일간 캠프를 연다.

현대차는 특히 해수욕장 인근의 대학기숙사를 숙박시설로 제공했던 예년과 달리 올해는 고급 휴양리조트를 제공하고, 캠프에 참가하는 모든 가족들에게 싼타페와 쏘나타 시승차를 무료로 빌려줄 예정이다.

캠프기간에는 차량 무상점검 서비스와 야외영화 상영, 생태체험, 마술·인형극 공연 등의 이벤트가 열리며, 리조트내 수영장과 사우나 등의 시설 이용료도 할인된다. 참가신청은 21일까지 현대차 홈페이지(www.hyundai-motor.com)에서 받는다.

기아차는 오는 24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강원도 고성군 봉수대해수욕장에 '오토캠핑장'을 운영할 계획이다.

올해로 22회째를 맞는 기아 '오토캠핑장'은 봉수대수욕장 1만5천평 부지에 일일 220대의 차량과 1만여명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으며, 화장실, 식수대, 샤워장 등의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다.

또 해변영화제와 별밤 콘서트 등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각종 이벤트와 함께 바나나보트, 스킨스쿠버 등 해양레포츠 이용시 30%의 할인 혜택을 준다. 기아 오토캠핑장은 17일까지 기아차 홈페이지(www.kia.co.kr)를 통해 기아차를 소유한 고객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기아차 관계자는 "기아 오토캠프는 지난 1984년 고객들의 여름휴가를 지원하고 건전한 자동차 캠핑문화를 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국내 민간기업 중 최초로 개장한 캠프촌에는 지금까지 13만5천여대의 차량과 58만5천여명의 고객이 이용해 하계휴양 최고의 명소로 자리잡았다"고 말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자동차 업계 할인 및 이벤트

기업	차종	할인금액	기타
현대	클릭	20만원 또는 디지털 카메라	
	베르나		
	싼타페	50만원 또는 30만원+디지털카메라	5년 이상 경과차량 보유자 20만원 추가 할인
	투싼		
	트라제XG		
	스타렉스		
GM대우	마티즈	20만원	대학 신입생, 신혼부부 포터블 DVD 제공
	칼로스	40만원	
	젠트라	30만원	
	라세티	90만원	
	레조(LPG)	100만원	
	스테이츠맨	200만원	
기아	모닝	40만원	로체 장애우에 20만원 추가할인
	프라이드(디젤)	20만원	
	세라토(구형)	100만원 (디젤은 20만원 추가할인)	
	로체	20만원 (디젤은 100만원 추가할인)	
	뉴쏘렌토	50만원	
	스포티지		
	그랜드 카니발	20만원	
쌍용	렉스턴	30만원	
	카이런, 액티언	150만원 또는 36개월 무이자할부	
	로디우스	200만원 또는 36개월 무이자할부	
르노삼성	SM5	20만원	
	SM3	신입사원 또는 신규면허 취득자 20만원 할인	아이나비 내비게이션 증정

■휴가 길 고장 만나기 전에

무료점검 센터 알아두고… 사고땐 보험사에 맡겨라

여름 휴가철을 맞아 가족이나 친구가 함께 모여 휴가지로 향하는 길은 언제나 들뜨고 즐겁게 마련이다. 하지만 자칫 휴가길 도중에 차량에 문제가 생긴다면 휴가 기분을 한순간에 날려버릴 수 있다. 따라서 휴가 떠나기 전 차량 점검은 기본이고 곳곳에 설치된 무료점검 센터를 미리 알아두었다가 활용하는 것이 좋다.

◇무료점검 센터 활용=고속도로나 국도를 운전하다가 차량에 이상이 느껴지면 안전한 장소로 옮겨 점검하는 게 중요하다. 휴가 기분을 고려해 그대로 운행했다간 고장은 물론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다.

휴가철을 맞아 현대·기아차와 GM대우·르노삼성·쌍용차는 합동으로 도로와 유명 휴가지에서 합동 무상점검 서비스를 실시한다. 엔진·브레이크·에어컨·타이어 점검은 기본이고 냉각수 및 각종 오일 보충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일반적인 소모성 부품은 무상으로 교환도 해준다.

◇휴가철 운전 요령=휴가길에 나선 차량은 뜨거운 태양 아래 에어컨을 켠 상태로 장거리 운행을 감당해야 한다. 또 평소보다 많은 인원을 태운채 출퇴근 길과 다른 비포장도로도 달려야 하는 등 이래저래 안전운전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진다.

▲에어컨 켠채 잠들면 낭패=자동차에서 에어컨 켜고 잠자는 것은 금물이다. 운전 도중에 졸음을 피하기 위해 차안에서 장시간 공회전 상태에서 에어컨을 켜고 잠을 자면 산소결핍증, 저체온증, 엔진과열로 화를 입을 수 있다.

▲음주운전 금지=휴가지 기분으로 시원한 맥주를 한잔 했다고 해도 음주단속의 예외가 아닌 만큼 음주운전은 금물이다.

▲사고땐 보험회사에 위임해야=고장이나 사고가 났을 때 정비업소나 견인차를 함부로 이용하면 안된다. 일단 사고가 나면 개인적으로 해결하지 말고 쌍방의 보험회사에 사고처리를 위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